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비교연구

오 인 근

<사회복지정책·전임강사>
oig93@kbtus.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공격성과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게임문화의 발달 등으로 인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성폭력 그리고 왕따현상과 그로 인한 자살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 기준이 희박하거나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¹⁾ 특히, 청소년기는 ‘성숙을 향해 성장하는 시기’로 올바른

1)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2009년 2월, 조사보고서, 3.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세대는 현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개방적 성 의식 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현세주의는 이상보다는 현실세계만 관심을 갖게 하며, 물질주의는 청소년의 내면적 가치를 무관심하게 만들며, 개인주의는 건강한 가치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위협하고, 감성적이고 개방적인 성 의식은 삶의 진지함을 약화시키고 윤리적 쾌락에 빠지게 한다.³⁾ 청소년세대가 경험하는 이러한 가치들로 인해 그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가치관이 내면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부각될 때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 가정 또는 학교 등에서 표면적으로 발견되는 현상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상담 또는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지극히 문제해결중심적인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독교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예로, 신앙적인 가정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고 적극적인 교회봉사를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는 신앙적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든 학생들이 주위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

2)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3rd ed. (Illinois: Thomas Nelson Publishers, 2007), 235.

3) 조용훈, “기독교대학선교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19집 (2011): 149-50.

다.4) 이미 청소년기 때부터 신앙이 그들의 생활과 유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기득권층 옹호나 비리연루(28.9%), 신앙과 실천 사이의 괴리(22.4%)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5) 따라서 기독교 가치관이 그들의 삶 속에 내재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가치관들에 대해 혼돈을 경험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학문적 접근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및 과정을 확인하는 연구,6)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문제 행동에 대한 가치관 수준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7) 세대 간·국가별 가치관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8)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9) 등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독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가치관 연구로는 성, 결혼 그리고 직업가치관 등에 관심을 두고 인과관계를 찾거나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0) 그러나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연구는 성 가치관과 직업가치관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가정과 학

-
- 4) 이장형, 『기독교윤리의 교육적 실천』 (서울: 선학사, 2004), 183.
 - 5) 학원복음화협의회 편, 『2009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데이터북』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2009), 99.
 - 6) 한미라,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9집 (2011): 99-143.
 - 7) 이삼식, “학교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24호 (2007): 5-14.; 황현주,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인문발달연구』, 12권 2호 (2005): 57-74.
 - 8) 정명숙, 김혜리,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시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권 1호 (2005): 115-35;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3.
 - 9) 강경자,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4), 1-137.
 - 10) 박진현, “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이 청소년자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1-119; 강수정, “성경적 자기이해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청소년 진로상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08), 1-152.

교를 넘어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고, 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회현장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을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청소년들의 가치관 수준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회차원의 전략과 방향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Ⅱ. 문헌고찰

1. 가치관

인간은 개인마다 상이한 수준의 수많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를 개념화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가치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다양한 학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의 내려진 가치개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¹⁾ ①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분명한 사고가 아닌 감정으로 얽혀있는 개념이다. ② 가치는 바람직한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동기 부여 개념이다. ③ 가치는 분명한 행동, 목표 또는 상황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규범과 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초월하는 추상적인 목적을 갖는 개념이다. ④ 가치는 어떠한 행동들, 정책들,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⑤ 가치는 개인마다 선호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개인마다 서열화된 가치를 갖고 있다.¹²⁾ 따라서 가치는 태도나 행동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11) 가치의 개념은 Allport(1961), Feather(1995), Inglehart(1997), Kohn(1969), Kluckhohn(1951), Morris(1956), Rokeach(1973) 등이 정의한 것을 Schwartz(2005)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사람들의 바람직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 연구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 인류학에서는 가치관을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며 여러 문화권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어떤 사회집단의 성원에 관한 경험적 내용과 활동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가치관을 내면화된 문화규범으로 보고 개인의 초자아에 의하여 구현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가치관을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¹³⁾ 문화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는 공통적으로 가치를 행동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¹⁴⁾

앞서 제시했듯이, 가치관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동시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유형과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조용훈은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자유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개인주의, 감성주의, 개방적 성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¹⁵⁾ 한미라는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의 역사적 변화를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사회관, 국가관, 윤리관의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¹⁶⁾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를 위하여 가치관의 하위유형으로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 통일의식 및 북한관 등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¹⁷⁾ 본 연구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비교를 위해서 한미라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구분을

12) Shamlom H. Schwartz, "Basic Human Values: An Overview," [온라인자료], <http://segri-did2.fmag.unicit.it/Allegati/convegno%207-8-10-05/Schwartzpaper.pdf>. (2005): 1, 2012년 1월 12일 접속.

13) 김성일,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을 위한 태도변화 원리의 응용," 『한국청소년연구』, 11권 1호 (2000): 43.

14) Shamlom H. Schwartz, "Basic Human Values: An Overview," 1.

15) 조용훈, "기독교대학선교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한 연구," 153-62.

16) 한미라,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109.

17)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4.

활용하는 것이 가치관의 특성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들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데 대한 인생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결혼관과 성 윤리관,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회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청소년 가치관

1) 청소년 가치관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인지적 발달로 인해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제2의 탄생기이다. 생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위치로서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¹⁸⁾ 즉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든 발달과업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며, 규범의식으로서의 가치관 또한 이 시기에 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본격적인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된다.¹⁹⁾ 이렇듯 청소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가치의 부재와 혼란으로 인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 기준에 대한 불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의 청소년들이 개인 중심적이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더 선호하며, 그리고 비판적 안목을 더 가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성인사회가 염려하는 것만큼 불안정하거나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18) 김정영, “일반 청소년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14권 2호 (2000): 11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2007년 12월, 조사보고서, 9.

있다.²⁰⁾ 그러나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근거해 볼 때,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나 규범들 가운데 비행이나 일탈 등 동조적인 규범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화되어지고 있다²¹⁾. 가치관 형성과 발달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Mckinney의 지각적 해석이론에 비추어 볼 때도 청소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됨으로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²²⁾ 다시 말해, 청소년은 주위 환경부터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성폭력, 왕따현상, 심지어 자살까지 만연해 있는 청소년 주변 환경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청소년 가치관 선행연구

청소년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대간, 국가간, 시대별로 가치관 수준을 제시하는 기술적 연구와 가치관의 원인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핵심유형이라 할 수 있는 인생관, 결혼관, 윤리관, 사회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생관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권력이나 명예, 돈보다 즐겁게 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생의 성공조건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 및 성실성을 주요 요소로 선택하고 있다.²³⁾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인격,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보다는 직업에서의 성공과 성취, 능력 발휘를 통해 인정받는 삶이라고 응답하였다.²⁴⁾

20) 한상철, 김영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권 1호 (2003): 56.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10.

22) Ibid.

23) 한상철, 김영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74.

청소년들은 이상적 삶이나 이념 대신에 현재의 행복에 삶의 우선권을 두는 현세주의적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평등 의식과 가족 내의 역할을 통해 결혼관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 평등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가정 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의 지지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 평등 의식이 높았으며 차별감수성도 뛰어나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남자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였다.²⁵⁾ 이삼식의 연구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부모는 대체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단,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성 평등 의식수준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 증가 등의 요인으로 해석되었다.²⁶⁾ 또한 성 평등 의식과 올바른 결혼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혼생활이 학생들의 결혼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청소년의 윤리관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선행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해 폐쇄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의식을 갖게 되어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기가 쉽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 의식 수준을 보였으나, 성 개방성의 수준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²⁸⁾ 혼전순결 조

24) 조용훈, “기독교대학선교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한 연구,” 156.

25) 박수미, “한국청소년의 성 평등의식 실태와 일반적 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31권 3호 (2008): 104.

26) 이삼식, “학교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정책적 함의,” 10-1.

27) 김태현,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124호 (2007): 18.

28) 백혜정, 김은정,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2008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7.

사에서는 과반수 정도의 학생들은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²⁹⁾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적 순결에 대한 가치관이 점차 느슨해지고 혼전 동거까지 개방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³⁰⁾ 이처럼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보수주의적 성 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 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성 의식의 약화의 원인에 대해 기독교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 의식과 순결관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즉,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로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차원에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우리사회는 개인의 이해보다 집단의 이해를 우선시 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도 집단 안에서 찾고, 집단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³²⁾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태도 및 가치는 급속한 정보화시대로 인해 개인주의 조건들이 강화되었으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³³⁾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³⁴⁾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는 동시에 올바른 사회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29) 한상철, 김영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75.

30) 한미라,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125.

31) 박진현, “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이 청소년자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89-91.

32) 조용훈, “기독교대학선교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한 연구,” 158.

33) Ibid., 159.

34) 한미라,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120.

지금까지 제시된 인생관, 결혼관, 윤리관, 사회관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가치관에 대해 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수준은 어떠한지, 특히 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중국, 일본학생들의 가치관 비교를 목적으로 2008년도에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가운데 기독교인 청소년과 종교가 없는 청소년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원 자료(Raw Data)의 표집방법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조사대상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제주도 소재의 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표집은 규모비례확률표집법(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 PPS)을 적용하여 학교별 학생 수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학생 수는 총 2,410명이었으며, 이 중 기독교인 청소년은 444명, 종교가 없는 학생은 625명으로 총 1,069명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청소년 가치관의 하위영역을 인생관, 결혼관, 윤리관, 사회관으로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종속변수: 가치관

① 인생관

인생관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의 미래는 밝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웃, 권력, 돈 등) 등으로 총 다섯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② 결혼관

결혼관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배우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 총 네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③ 윤리관

윤리관은 ‘동성애,’ ‘낙태,’ ‘이혼,’ ‘혼전성관계,’ ‘동거,’ ‘미혼모,’ ‘입양’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한 수용정도로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④ 사회관

사회관은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교유무이며, ‘기독교인 청소년’과 ‘종교가 없는 청소년’(이하, 비기독교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가치관 차이는 카이사승(χ^2) 검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응답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47.1%(503명), 여학생이 52.9%(566명)였으며, 학교는 중학생 3학년 29.2%(312명), 고등학교 1학년 24.4%(261명), 고등학교 2학년 25.6%(274명), 고등학교 3학년이 20.8%(222명)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기독교청소년이 41.5%(444명), 비기독교청소년은 58.5%(625명)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n=1,069)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 별	남학생	503	47.1
	여학생	566	52.9
학 력	중학교 3학년	312	29.2
	고등학교 1학년	261	24.4
	고등학교 2학년	274	25.6
	고등학교 3학년	222	20.8
종 교	기독교	444	41.5
	비기독교(종교없음)	625	58.5

기독교청소년 417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갖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0.5%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복을 받기 위해서가 18.9%로 나타났다. 그러나 믿음, 구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신앙적 동기는 14.3%에 불과하였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신앙 생활한다는 의견은 11.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는 신앙적 동기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 경우는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교를 갖게 된 이유

	빈도	퍼센트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믿음, 구원, 영원한 삶 등)	52	14.3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215	50.5
복을 얻기 위해(개인, 가족, 친척 등)	82	18.9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45	11.1
사회적 교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11	2.5
가족의 권유로	3	0.6
모르겠음	7	1.6
기 타	2	0.5
합 계	417	100.0

2.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차이분석

1) 인생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중 인생관의 차이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지금의 행복에 대해 만족한다는 기독교청소년은 69.7%로 비기독교청소년 66.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만족한다는 기독교청소년은 60.3%로 비기독교청소년 58.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모두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표 3> 기독교·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인생관의 차이

구 분		만족	불만족	χ^2
현재에 대한 행복	기독교	308(69.7%)	134(30.3%)	.287
	비기독교	413(66.4%)	209(33.6%)	
	전 체	721(67.8%)	343(32.2%)	
미래의 대한 희망	기독교	267(60.3%)	176(39.7%)	.658
	비기독교	367(58.9%)	256(41.1%)	
	전 체	634(59.5%)	432(40.5%)	

*p<.05, **p<.01, ***p<.001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웃, 권력, 돈의 중요도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93.6%가 응답했으며, 권력은 67.6%, 이웃에 대해서는 58.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청소년은 이웃에 대해 62.2%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55.9%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권력에 대해서는 기독교 청소년은 63.5%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70.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돈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기독교 청소년은 91.2%, 비기독교 청소년은 95.4%로 나타나 비기독교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독교 청소년들은 이웃에 대해서,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권력과 돈에 대해서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생에서 중요한 정도

구 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χ^2	
이 윳	기독교	275(62.2%)	167(37.8%)	4.214*
	비기독교	349(55.9%)	275(44.1%)	
	전 체	624(58.5%)	442(41.5%)	
권 력	기독교	279(63.6%)	160(36.4%)	5.702*
	비기독교	440(70.5%)	184(29.5%)	
	전 체	719(67.6%)	344(32.4%)	
돈	기독교	402(91.2%)	39(8.8%)	7.650***
	비기독교	596(95.4%)	29(4.6%)	
	전 체	998(93.6%)	68(6.4%)	

*p<.05, **p<.01, ***p<.001

2) 결혼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 중 결혼관을 분석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을 고려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력이 14.3%, 외모 9.3%, 장래성 2.8%, 종교 3.7%, 자라온 환경 2.8%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독교청소년은 성격(59.8%), 경제력(14.0%), 종교(8.6%), 외모(6.8%), 장래성(3.8%) 순이었으며, 비기독교청소년은 성격(63.1%), 경제력(14.5%), 외모(11.1%), 장래성(3.7%), 자라온 환경(2.4%), 종교(0.2%)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청소년은 비기독교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조건으로 성격과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종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표 5> 배우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것

구 분	기독교	비기독교	합 계
성 격	264(59.8%)	392(63.1%)	656(61.7%)
경제력(재산, 수입 등)	62(14.0%)	90(14.5%)	152(14.3%)
외 모	30(6.8%)	69(11.1%)	99(9.3%)
장래성	17(3.8%)	23(3.7%)	40(2.8%)
종 교	38(8.6%)	1(0.2%)	39(3.7%)
자라온 환경	15(3.4%)	15(2.4%)	30(2.8%)
기타(학력, 취미 등)	16(3.6%)	31(5.0%)	47(4.4%)
합 계	442(100.0%)	621(100.0%)	1,063(100.0%)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45.5%는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에 불과했다.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결혼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6> 기독교·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분석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	χ^2
기독교	77(17.4%)	168(38.0%)	197(44.6%)	.267
비기독교	104(16.7%)	231(37.1%)	287(46.1%)	
전체	181(17.0%)	399(37.5%)	484(45.5%)	

*p<.05, **p<.01, ***p<.001

결혼의사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성별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독교와 비기독교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독교청소년인 경우, 58.5%의 여자청소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9.6%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남자는 28.6%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24.7%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는 분명하였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결혼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기독교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분석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	χ^2	
기독교	남자	52(28.6%)	85(46.7%)	45(24.7%)	55.574***
	여자	25(9.6%)	83(31.9%)	152(58.5%)	
비기독교	남자	83(26.3%)	129(40.8%)	104(32.9%)	61.718***
	여자	21(6.9%)	102(33.3%)	183(59.8%)	

*p<.05, **p<.01, ***p<.001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결혼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기독교청소년의 경우,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가 33.7%였으며, 여자는 1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기독교청소년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청소년인 남자는 46.2%였으며, 여자는 30.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였다. 그러나 비기독교청소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모두가 90%이상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비기독교 여자청소년은 98.7%가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청소년의 경우, 결혼 이후 직장생활을 하는 것

에 대한 성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공동가사분담에 대해 기독교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비기독교인은 성별에 따라 가사 분담의 차이가 발생했다. 비기독교인 남자청소년은 93.1%, 여자청소년은 99.0%가 공동 가사분담에 찬성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종합해 보면,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결혼 후 직장생활과 맞벌이 부부의 공동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은 남자보다는 여성의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독교·비기독교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분석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χ^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기독교	남자	62(33.7%)	122(66.3%)	16.678***
		여자	44(16.9%)	216(83.1%)	
	무교	남자	106(33.3%)	212(66.7%)	22.792***
		여자	51(16.7%)	254(83.3%)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	남자	85(46.2%)	99(53.8%)	11.757**
		여자	78(30.2%)	180(69.8%)	
	무교	남자	110(34.8%)	206(65.2%)	0.284
		여자	100(32.8%)	205(67.2%)	
여성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기독교	남자	166(90.2%)	18(9.8%)	3.662
		여자	244(94.9%)	13(5.1%)	
	무교	남자	282(89.2%)	34(10.8%)	23.919***
		여자	299(98.7%)	4(1.3%)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 분담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기독교	남자	176(95.7%)	8(4.3%)	4.490
		여자	255(98.8%)	3(1.2%)	
	무교	남자	295(93.1%)	22(6.9%)	14.234***
		여자	301(99.0%)	3(1.0%)	

*p<.05, **p<.01, ***p<.001

3) 윤리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윤리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윤리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성애, 낙태, 이혼, 혼전성관계, 동거, 미혼모, 입양 등에 대한 가치 수준을 비교하였다. 동성애는 기독교 3.06점, 비기독교 3.52점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이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p<.01). 낙태는 기독교 2.70점, 비기독교 3.09점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이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p<.01). 이혼에 대해서는 기독교 3.99점, 비기독교는 4.37점으로 기독교청소년에 비해 비기독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p<.05).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기독교 3.69점, 비기독교 4.36점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이 혼전성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001). 동거에 대해서는 기독교 4.37점, 비기독교 5.00점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이 동거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p<.001). 미혼모는 기독교 3.47점, 비기독교 3.60점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입양에 대해서는 기독교 6.98점, 비기독교 6.69점으로 기독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동성애, 낙태, 이혼, 혼전성관계, 동거, 미혼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독교청소년은 낙태에 대한 수용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동성애, 미혼모, 혼전성관계, 이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기독교·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윤리관의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동성애	기독교	3.06	2.59	-2.721**
	비기독교	3.52	2.85	
낙 태	기독교	2.70	2.08	-2.846**
	비기독교	3.09	2.30	
이 혼	기독교	3.99	2.65	-2.306*
	비기독교	4.37	2.62	
혼전성관계	기독교	3.69	2.79	-3.765***
	비기독교	4.36	2.91	
동거	기독교	4.37	2.57	-3.822***
	비기독교	5.00	2.73	
미혼모	기독교	3.47	2.47	-.885
	비기독교	3.60	2.44	
입양	기독교	6.98	2.89	1.593
	비기독교	6.69	2.87	

*p<.05, **p<.01, ***p<.001,

점수는 1-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사회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사회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이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기독교청소년은 20.3%, 비기독교청소년은 15.4%만이 공정하다고 인식했으며 비기독교청소년에 비해 기독교청소년이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했다(p<.05).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는 기독교청소년은 37.9%, 비기독교청소년은 36.5%로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이 낮다고 보았으나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자신의 희생수준에 대해 기독교청소년은

55.3%, 비기독교청소년은 48.9%가 희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기독교 청소년에 비해 기독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국가의 위급상황 시에 기독교청소년은 42.3%, 비기독교청소년은 37.8%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에 대해서는 종교유무에 상관없이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기독교청소년보다는 기독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기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다. 그러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독교청소년은 비기독교청소년에 비해 우리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했으며, 사회 및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회관을 갖고 있었다.

<표 10> 기독교·비기독교청소년에 따른 사회관의 차이분석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χ^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기독교	310(69.8%)	134(30.2%)	.291
	비기독교	426(68.3%)	198(31.7%)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기독교	90(20.3%)	353(79.9%)	4.327*
	비기독교	96(15.4%)	527(84.6%)	
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기독교	168(37.9%)	275(62.1%)	.213
	비기독교	228(36.5%)	396(63.5%)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기독교	244(55.3%)	197(44.7%)	4.304*
	비기독교	304(48.9%)	318(51.1%)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기독교	188(42.3%)	256(57.7%)	.145
	비기독교	236(37.8%)	388(62.2%)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는 필요하다	기독교	407(92.5%)	33(7.5%)	.107
	비기독교	557(89.5%)	65(10.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청소년들의 가치관 수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생활 목적이 신앙적 동기(믿음, 구원 등)인 경우는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만한 동기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은 ‘현재 삶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돈이 93.6%로 가장 높았으며, 권력이 67.6%, 이웃이 58.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청소년은 비기독교청소년에 비해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돈과 권력은 비기독교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청소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59.8%), 경제력(14.0%), 종교(8.6%) 순으로, 비기독교청소년은 성격(63.1%), 경제력(14.5%), 외모(11.1%)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사에 대해서 청소년의 45.5%는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으며, 17.0%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과의 결혼의사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은 가정 내에서의 성 역할, 가사분담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 결혼관 세부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기독교청소년들은 동성애, 낙태, 이혼, 혼전성관계, 동거 등에 대해 비기독교청소년에 비해 수용정도가 낮아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비기독교청소년이,

입양에 대해서는 기독교청소년의 수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곱째, 기독교청소년은 비기독교청소년에 비해 우리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했으며, 사회 및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회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한 경우는 약 20% 수준이었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약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를 향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기독교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가치관은 변할 수 있으나 교회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교회는 건전한 가치설정의 규범과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교회 내 청소년을 위한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윤리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지켜 온 핵심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면서도, 청소년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³⁵⁾ 윤리강령은 청소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무조건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청소년들도 성, 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자적 모습을 보여 왔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가정, 학교, 민간단체의 역할로 넘기기보다는 교회가 받아들여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 강의나 비디오 시청과 같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교육이거나 주제에 대한 사유와 토론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

35) 장동민, “교회사회사업 핵심가치 정립의 모델과 원리,” 『교회사회사업』, 제4호 (2006): 41.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결혼관이 비기독교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우선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결혼관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방법과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인·노인·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의 인권문제, 지역사회문제, 환경, 봉사, 공동체 운동 등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전체 사회 내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므로 성숙되고 올바른 사회관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Collins, G. R. *Christian Counseling*, 3rd ed. Illinois: Thomas Nelson Publishers, 2007.

Ellul, Jacques. 「원함과 행함」. 양명수 역. 서울: 솔로몬, 2008.

Geisler, Norman L. and Ryan P. Snuffer.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 박주성 역. 서울: 사랑플러스, 2009.

Newcomb, T. M.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0.

신원화. 「시대의 분별과 윤리적 선택」. 서울: SFC, 2004.

- 신준호.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서울: 한들, 2005.
- 양낙홍. 『한국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 이장형. 『기독교 윤리의 교육적 실천』. 서울: 선학사, 2004.
- 한국복음화협의회 편. 『2009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데이 터북』. 학원복음화협의회, 2009.

2. 정기간행물

- 김성일.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을 위한 태도변화 원리의 응용.” 『한국청소년연구』, 11권 1호 (2000): 41-87.
- 김정영. “일반 청소년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14권 2호 (2000): 115-41.
- 김태현.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124호 (2007): 15-24.
- 노은석. “청소년 성문화의 이해와 지도.” 『복음과 실천』, 46집 (2010): 343-67.
- 박수미. “한국청소년의 성 평등의식 실태와 일반적 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31권 3호 (2008): 85-106.
- 이삼식. “학교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24호 (2007): 5-14.
- 장동민. “교회사회사업 핵심가치 정립의 모델과 원리.” 『교회사회사업』, 4호 (2006): 39-59.
- 정명숙, 김혜리.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권 1호 (2005): 115-35.
- 조용훈. “기독교대학선교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19집 (2011): 149-72.

한미라.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9집 (2011): 99-143.

한상철, 김영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권 1호 (2003): 55-79.

황현주.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인문발달연구』, 12권 2호 (2005): 57-74.

3. 미간행물

강경자.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4.

강수정. “성경적 자기이해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청소년 진로상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08.

박진현. “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이 청소년자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백혜정, 김은정.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2008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2009년 2월, 조사보고서.

이미라.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회 교육: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2007년 12월, 조사보고서.

4. 기타

Schwartz, S. H. “Basic Human Values: An Overview.” [온라인자료]. <http://segri-did2.fmag.unict.it/Allegati/convegno%207-8-10-05/Schwartzpaper.pdf>. (2005): 1-19. 2012년 1월 12일 접속.